

카뮈에게 ‘계시’를 던진 ‘침묵’의 언어집



《침》 장그르니에 지음 | 김화영 옮김 | 민음사 | 178쪽 | 값 6,000원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장 그르니에의 산문집인 《침》의 서문에서 알베르 카뮈는 이러한 찬사를 남겼다.

“나는 아무런 회한도 없이, 부러워한다. 오늘 처음으로 《침》을 열어보게 되는 저 낮모르는 젊은 사람을 뜨거운 마음으로 부러워한다.”

《침》은 1933년 프랑스에서 초판이 발행되어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탐독했던 장 그르니에의 대표작이다. 국내에는 지난 1980년에 뒤늦게 처음 소개되었다. 1990년대 초 도서출판 청하에서 전집으로 나왔지만 절판됐고 1997년 민음사에서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와 정식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해 펴냈다. 1980년대 당시 초판을 번역했던 김화영 교수가 다시 공들여 번역을 했으니 김화영과 침의 독특한 관계도 눈길을 끈다.

현재까지 모두 13쇄를 찍어 1998년부터 집계된 자료로만 2만 천여 부가 발행되었다. 지금도 한달 평균 350부씩 판매되고 있다. 카뮈가 스무살에 이 책을 읽고 ‘어떤 계시’를 느끼며 깊은 감명을 받았듯이 이 책의 독자들 역시 막연한 실존의 문제로 고민하는 20~30대의 젊은층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인생의 구체적인 해답을 얻기 보단 ‘그런 것이 삶’이라는 일종의 위안을 얻는다. 장그르니에의 미문은 언어가 가지는 표현의 한계를 넘어 일종의 ‘침묵’의 언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는 어려운 철학적

용어로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섬, 여행,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 죽음을 앞둔 백정 등 일상적 소재들과 주변 사람들을 소재로 해 담담히 풀어 나간다. 절대와 신성에 대한 명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어조는 고답적이지 않다. 마치 곁에서 자신의 비밀을 귀엣말 해주는 이의 자세와도 같다.

첫 번째 수록된 〈공의 매혹〉에서 그르니에는 어릴 적 직관적인 체험을 통해 깨달은 것, 즉 아무것도 없음이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라는 철학을 담아낸다.

또 〈고양이 물루〉에서 작가는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물루를 관찰한다. 그가 보기에 물루는 자체로 완벽하고 행복하다. 인간처럼 자신을 꾸미거나 필요이상의 것을 원하지도 않는 충만한 삶. 동물들에게나 가능한 삶의 방식을 통해 인간 욕심의 덧없음을 이야기한다.

“혼자서,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선 도시에, 도착하는 공상을 나는 몇 번씩이나 해보았다”라는 구절로 유명한 〈케르케렌 군도〉, 누구나 한번쯤 해보았을, 하지만 누구도 쉽게 실행하지 못할 법한 일이다.

작가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굳이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비밀스러운 삶을 갖고 싶은 바람 때문이다.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잣대에도 기울지 않은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역자 김화영 교수의 말처럼 “우리가 막연히 읽고 싶은 글, 천천히 되풀이하여, 그리고 문득 공상에 잠기기도 하면서, 다시 읽고 싶은 글 몇 페이지란 어떤 것일까?”

장그르니에의 《침》은 우리의 막연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오아시스 같은 책으로 언제나 남아 있을 것이다. **★**

강경희기자